"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학술출판 40년"

94년 보내며 증보·개정판 낸 두 원로 출판인

우리 출판계를 대표하는 두 인물 일조각의 한만년(70) 사장과 일지사의 김성재(68) 사장이 두달 남짓 시차를 두고 각각 「일업일생」의 증보판과 「출판의 이론과 실제」 개정판을 펴냈다. 우리 출판계를 대표하는 두 거목이자, 불모에 가까운 학술출판계의 자존심을 지켜온 일조각(一潮閣)과 일지사(一志社)의 대표들인지라 그 의미는 더 각별하다. 원로의 두 책은 '수상·시평모음'과 '출판이론서'라는, 틀에 담긴 내용물은 비록 다를지라도 그 속을 관통하는 출판정신은 그린듯이 동일하다. 그들은 "문학출판이 출판의 꽃이라면 학술출판은 그 뿌리"라는 신념으로 척박한 학술출판의 길을 지켜왔고, 한국출판의 자존심을 살려준 이들이다. 일조각이 국학, 그 가운데서도 사학에 집중하고 있다면, 일지사는 국문(어)학 고미술 등 국학 전반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를까. 그들은 각각 53년과 56년 출판사를 설립했고, 70년대에는 출협 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업계일에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 이제는 업계일에서는 물러나 자신들의 사무실에 칩거하면서 반백년의 출판인생을 조용히 정리하는 듯하다. 출판의 정도를 걸어온 그들의 출판인생은 그 존재 자체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다.

일조각 한만년 사장

"요즘 하는 일? 특별난 것도 없는데 바빠요. 읽어야 할 책, 읽고 싶은 책도 많고…. 아침에 두어시간 운동하고 10시쯤 사무실에 나와, 그리고 집에는 5시 좀 못돼 여기서 떠나지요. 점심먹고 별일 없으면 여기서 책보는데, 시간이 빠듯해요. 읽고 책꽂이에 꽂으려고 쌓아뒀는데, 쓰레기통 같지요? 민영규 교수의 「강화학 최후광경」 하고 이광린 교수의 「개화기 연구」를 같이 읽는데 재미있어요."

한만년 사장은 출판사의 실무에는 거의 관여를 안하는데도 하루가 너무 짧다며 건강한 모습, 빠른 목소리로 호쾌하게 근황을 밝힌다. 저자 관리나 출판사의 자잘한 살림살이는 최재유 전무에게 일임해두고 그는 큰 덩어리의 일만 결재하는 선에서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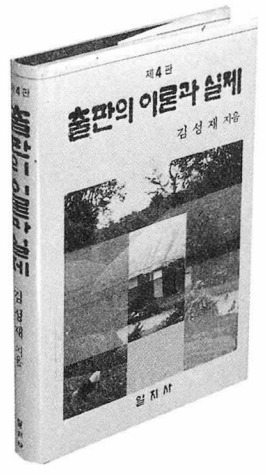
"새로 쓴 글을 한권으로 묶을까 했는데 원고가 그만큼이 안돼요. 그래서 10년전 책에다 덧붙였죠. 묵직허니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또한번 정리하는 거지요."

1925년생인 한사장은 우리 나이로 치면 올해가 고희다. 10년전이니까 환갑때 책을 내고 고희때 또한번 낸 셈이다. 10년 동안이지만 쓴 글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 나이가 나이니 만큼 짱짱하게 일할 때 썼던 글들과는 달리, "그 나이에 어쩜 그리 젊고 활기찰 수 있느냐"며 건강비법을 써달라는 주문에 응답한 글, 활자인생 4, 50년을 되돌아보는 '자전 에세이'류, 그리고 무엇보다 '○○○을 보내며' '○○○을 기리며'와 같이 이번 증보판에는 그 전의 책에서는 찾을 수 없던 추모사들이 많이 실려 있다.

"자꾸 빨리 가데요. 친하고 아까운 사람들인데 안쓸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추도사라는 게 참 어려운 글이에요. 글도 글이지만 가서 읽으려면 눈물도 나고…. 그래서 다시는 안쓸려고 그래요."

그는 오래 전부터 출판계 일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만나는 사람들도 한정돼 있다. 모두가 다 출판종사자들은 아니지만 몇몇 젊은 사람들과 부정기적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빠지지 않고 꼭 간다. 그곳에 가면 아들뻘 되는 젊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유쾌하고 세상사의 '잡담'을 많이 들을 수 있어 즐겁다.

"출판하는 후배들? 할말이 뭐 있겠어요. 출판환경만 크게 바뀌었다 뿐이지 출판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20년전, 30년전 내가 현역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던 그때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쓴 내 책이지만, 이 책 읽어보면 선배들이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보탬이 될 겁니다."



"금년초 저작권법이 새로 공포되고, 전자출판 쪽도 3판 낼 때와는 많이 달라졌으니 마땅이 개정판을 내야지요. 거의 새로 쓴 거나 다름없어요. 조판도 '교정' 항목의 35페이지만 남겨두고 전부 전산식자로 바꾸었어요. 조금 남겨둔 것은 아무리 활자조판이 사라졌다 해도 편집자라면 그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올해 예순여덟의 김성재 사장은 40년전부터 해오던 편집자의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4판을 낸 「출판의 이론과 실제」는 85년 초판본을 낸 이후 87, 91년 각각 재판과 3판을 찍었다. 이 책은 출판종사자들에게 출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물론 편집과 제작의 기술을 익히는 데 없어서는 안될 출판학의 바이블로 정평있는 책이다.

"편집자의 일에 정년이 어디 있겠어요. 눈이 보이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해야지요."

그가 이번 책에서 특히 중점을 둔 곳은 '전자출판'과 '전산식자' '제판' 및 '저작권법' 부문이다. 불과 3년 사이지만 워낙 변한 것도 많고 전문적인 분야라 개정하는 1년 동안을 "정말 혼났다"는 말로 표현했다.

"나중에 바뀔테니 그러면 또 개정판을 내야겠지요. 5판, 6판… 그게 저자의 의무지요."

그에게는 수십년 동안 지켜온 몇가지 원칙이 있다. 하루 8시간 일하기, 교정은 하루 평균 50여 페이지 등등. 「출판…」의 개정작업에다 윤내현 교수의 책과 정경수 교수의 「한국문화론」(3집)의 교정도 지난 여름에 맞물려 있어 더더욱 힘들었다고.

"보람? 책이 나오면 '좋은 책 냈구나' 싶어 몇번 쓰다듬게 돼요. 예쁘다싶구요. 내가 침침한 눈 비벼가며 교정 본 책이라서 그런지 애착이 참 많이 가요."

김 사장은 은빛 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단아한 자태로 조용조용 말을 이어나간다. 학술도서에 대한 당국의 무관심도 질타하고, 도서관의 학술도서 구입률이 예전보다 더 낮아진 듯하다며 몹시 안타까워도 하면서.

9시5분쯤 회사에 출근해 6시10분쯤 회사에서 떠나 청운동집으로 곧장 간다. 점심시간 1시간, 신문·잡지 들추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정보는데 보낸다.

"집에 가서? TV를 보는데, 뉴스와 토론 같은 것만 봅니다. 아, 저이에겐 이런 주제를 맡기면 되겠구나…." 집에 가면 일을 안한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영원한 현역이다.

일지사 김성재 사장

——정혜옥 기자